

세부 기준 없어 손발 묶인 제주용암해수

미네랄 풍부 함유… 제도적 근거없어 폐기물 신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發 수요 증가 적절 대응 못해
“별도 법률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 육성 필요 시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바닷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양심층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제주용암해수에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용암해수는 제주동부지역에 부존하는 염지해수로 현무암층에 의해 여과돼 항상 청정하고 유용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제주만이 보유한 수자원이다.

바닷물이 화산암반층에 의해 자연여과돼 육지의 지하로 스며든 물로서 유기물 및 병원균 등이 거의 없다.

해양심층수와 달리 일본 원전 오염수를 포함하고 있는 바닷물과 혼합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게 전문

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도 용암해수의 수질관리기준과 이용방법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저온성, 부영양성, 청정성, 미네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질관리기준과 이용방법 등을 정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등을 명시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3일 ‘해양심층수 법률’ 시행령 제 34조 및 제 3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 규격별 평균가격과 해양심층수 t당 가격을 고시했다.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제조 가격은 0.50ℓ당 335.4원, 1.00ℓ당 510.7원, 1.5ℓ 984.0원, 2ℓ 791.8원이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가격은 1.00ℓ 1266.6원, 해양심층수 t당 평균 가격은 6955원이다.

이에 반해 제주용암해수는 별도의 법률이 없고 ‘먹는물 관리법’에 염지해수로 분류돼 있다.

물속에 녹아 있는 염분 등의 총 용존고형물이 2000mg/ℓ 이상인 염 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원수로 정의됐다.

제주용암해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에 관한 표시 기준, 수질

관리기준과 이용방법 등이 전무하다. 용암해수 탈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해 이용가능성이 무궁무진 하지만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원수대금은 t당 1762원으로 정했다. 해양심층수 t당 평균가격 6955원에 비해 약 4배 낮은 가격이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관계자는 “제주용암해수는 원전 오염수 방류시 해양심층수와 달리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용암해수의 농축수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구(R&D)강화, 병입수를 넘어선 제품의 다각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일반산 일단지 내에서 제주용암해수를 1만5000ℓ를 생산해 (주)오리온제주용암수 등 18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읍·면 행복택시 지원 대상 확대될까
도, 택시운송사업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제출
대상자 70→65세 이상 확대 추진 등 개선·보완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대상 연령의 나이를 당초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시내지역과 형평성 문제와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읍·면 교통복지지위 향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일부터 개최하는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안으로 제출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나이를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동 지역은 혜택에서 제외함

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더욱이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지방비로 지출되는 예산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교통복지카드 발급률 83%, 사용률 60%로 가정, 5년간 택시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3년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행 첫해에는 63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된다. 이어 2024년 85억원, 2025년 93억원, 2026년 100억원, 2027년 108억원이 투입되는 등 매년 지방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직전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보류된 해당 조례 내용 역시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읍면에 거주하는 도민에 한해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당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임시회 심사에서 여러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하나만 물어봐라!” 4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가에서 낚시꾼들이 유채꽃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학꽂이를 낚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의 대표 먹거리를 한 곳에서…

7~9일 ICC서 2023 제주자치도 식품대전 박람회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제주잇(eat)수다’ 박람회가 오는 7~9일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주)제주국

제컨벤션센터와 (재)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전시판매관, 제주도 우수제품 품질인증(JQ)홍보관, 농

수축산물 판매관, 전통주관 등 다양한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총 95개 부스가 마련되는 전시판매관은 도내 유명 베이커리, 과자점, 1차산물, 가공식품 및 외식업체가 참여하며, 6개 테마로 운영되는 제주 대표식품 테마관까지 최신 제주식품 트렌드를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JQ관에서는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JQ) 관련 해시태그 이벤트와 질문 답변(Q&A) 이벤트로 경품을 제공하고, JQ인증제품과 자류 공짜 담아가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수협에서는 갈치·육뚝·어묵을, 제주축협에서는 치즈 3종을 특가 한정 판매하고, 서귀포축협에서는 흑우 한 마리 시식행사, 제주양돈농협에서는 제주 돼지고기 시식행사, 제주축협에서는 올레길 명품우유(180ml)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행사일 오전 10시에 선착순 100명에게 쌀 1kg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며, 2시간마다 타임 경품 이벤트와 5만원 이상 구매시 팡 없는 경품 추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대로그자

알림

2023 한라일보 시민기자 모집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한라일보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시민기자는 생활 주변의 소식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상은 물론 따뜻한 미담 사례, 인터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작성하여 한라일보 지면을 통해 보도하게 됩니다. 시민 저널리즘에 맞춰 독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하게 될 2023 한라일보 시민기자 모집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4월 5일(수) ~ 4월 12일(수) 오후 6시

▶참여방법: 이력서(사진 첨부·연락처 기재)를 작성 이메일(hl@ihalla.com)이나 팩스(752-9790) 접수

▶문의: 한라일보 편집국 편집부(064-750-2252)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저 살아가는 문제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안전사고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나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있을까?

환경을 지키는 기술 구현될 수 있을까?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중부발전은 ESG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KOMIPO 한국중부발전